

축복, 축복의 2018년

대망의 새해를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4가지 비전을 통해 장차 눈앞에 펼쳐질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마음에 그려본다.

재창조의 권능

태초의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달리 이미 창조된 피조물을 바꾸거나 새롭게 만드는 역사를 베푸는 권능을 말한다.

우리가 체험한 재창조의 권능!

국내외 이곳저곳에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통해 놀라운 재창조의 권능을 체험한 성도들의 간증을 소개한다.

“화가처럼 그림을 잘 그리게 되었어요”

재창조의 권능이 담긴 무안단물에 침수한 뒤 예술성이 살아나 화가처럼 그림을 잘 그리게 된 러시아 엘레나 리트비나 집사 간증.

만민뉴스

제821호 2018년 1월 7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날, 2018년



2017년 12월 31일, 주일 저녁예배 직후 ‘2017-2018 송구영신예배’를 앞두고 본당에서 사무연회가 진행되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그 자리를 빌려 2018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예비하신 축복과 국내외 1만 1천여 자·협력교회와 함께 전 성도가 기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4대 비전을 발표하였다.

비전 1. 재창조의 권능으로 ‘공간의 운영’을 온전히 이루는 거룩한 사역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 나라” 말씀한 대로 재창조의 권능으로 공간을 운영하는 방법을 온전히 터득하면 마음에 품은 대로 근본의 소리를 발하여 최적의 열매, 최상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공간의 운영’이란 모든 하늘을 재창조의 권능으로 조절하거나 움직이는 것이므로 자연계는 물론 영계에서도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태풍이나 허리케인을 약화시키거나 경로를 이동시키는 것은 물론, 비구름을 나오게 하거나 다른 곳으로 보내 가뭄과 홍수를 해결하며, 바람을 일으켜 황사나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 오염의 문제도 예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많은 영혼을 살리고 변화시키며 영의 세계를 뚜렷이 보일 수 있다.

비전 2.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사모해 응답받는 큰 기쁨의 사역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말씀한 대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루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 예비하신 축복이 문앞에 이르렀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루기 위해 마음을 할레하여 합당한 그릇을 준비하고 진리로 가득 채워야 한다. 아무리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이라 해도 목자의 사랑과 공의를 믿고 근본의 빛과 소리를 의지하면 명백한 악은 물론 양심의 악, 본성 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악까지 버릴 수 있다.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사모함으로 능히 믿음의 반석을 지나 영, 그리고 온 영과 깊은 온 영의 차원으로 들어가 큰 기쁨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비전 3. ‘참된 성전’을 이루기 위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성도들의 사역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말씀한 대로 주님을 영접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으로 영을 낳으면 영의 사람, 온 영의 사람이 되어 빛을 발할 수 있다.

이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성도들이 건축한 성전이라야 참된 성전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선포되고 성령의 권능으로 질병이나 약함, 귀신들림에서 해방되며

가정, 일터, 사업터의 문제를 해결받는 등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건축하는 대성전은 구원받은 영혼들이 물밀듯 몰려오는 참된 성전이므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성도들이 준비되는 만큼 대성전 건축도 앞당겨진다.

비전 4. ‘영적인 사랑’이 더욱 온전히 임하는 제단을 이루는 사역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한 대로 영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얻을 수 있기에 가장 큰 은사이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2007년, 마음에 한 가지를 품고 단에서 선포하면 그대로 축복하셔서 영광 돌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강하게 주관받은 것이 바로 ‘영적인 사랑’이다.

그리하여 이 제단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은 차원으로 펼쳐졌으며, 2010년부터는 ‘사랑의 하나님’이 성도들의 마음 안에 새겨졌다. 하나님께서는 새해를 맞아 이 제단에 영적인 사랑이 더욱 온전히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해주셨다. 공간의 운영을 통해 실로 놀라운 역사가 눈앞에 펼쳐질 대망의 2018년, 새해에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며 영적인 사랑을 온전히 이룸으로 목자와 함께 마지막 때의 섭리를 창대히 이룰 주역이 되기를 바란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요 14:12)

먼저 그 빛으로 두르신 다음 하루하루 창조 역사의 펼쳐 나가셨지요.

이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된 피조물을 바꾸거나 새롭게 만드는 재창조의 역사를 베푸는 권능이 바로 '재창조의 권능'입니다.

그러면 재창조의 권능이 무엇인지 '이미 창조된 피조물'을 지구의 자연 환경, 사람의 몸, 사람의 마음 등 세 분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1. '지구의 자연 환경'을 재창조하는 역사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의 자연 질서는 천지창조 첫째 날, 하나님께서 근본의 빛으로 두르실 때 세워졌습니다. 지구는 하

루에 한 번 자전하고, 1년에 한 번 공전한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며, 0도 이하에서 얼고 100도에서 끓는다', '계절의 순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다' 등 육의 공간에 필요한 모든 원칙이 세워졌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근본의 빛 안에서 모든 피조물 사이의 질서와 원칙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성하면서 죄악이 관영해짐에 따라 이 창조의 질서가 점점 어그러져갔습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자연이 파괴되었고, 지구는 오염되어감으로 이상 기후, 기상이변, 자연재해 등의 현상이 나타났지요. 재창조의 권능으로는 이러한 자연재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정도가 잦아들거나 멈추

게 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바로 기운을 조절하는 재창조의 권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자연재해의 원인이 지구 온난화이므로 역으로 이 근본 원인을 해결한다면 재해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구 전체의 평균 온도를 마음대로 낮춘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연재해 발생 지역이나 예상 지역에 국한해서 기운을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2017년 9월 초, 미국을 공포로 떨게 한 초강력 허리케인 '어마'의 피해를 막기 위해 미국에 있는 목회자들은 기도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어마'의 진로가 바뀌고 약화, 소멸되어 미국은 큰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요. 2016년 10월 초에는 허리케인 '매튜'가 하루 만에 세력이 약화

창세기 1장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지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허리케인 ‘어마’로부터 온전히 보호받았습니다”



발렌티나 콜로비나 성도 (69세, 미국 뉴욕인터내셔널만민교회)

2017년 9월, 역대 최강 허리케인 '어마'가 플로리다로 북상하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강제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저는 플로리다 서쪽 노스포트 시에 살고 있는데 병든 남편을 데리고 피난을 갈 수 없어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를 요청드렸지요. 보호받을 것을 굳게 믿었기에 남편에게도 안심하라고 했습니다.

그 뒤 허리케인 '어마'의 중심이 시내 전체를 지나갔음에도 저희 집 주변에 있는 나무 한 그루도 손상을 입지 않고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AI(조류독감)로부터 습지를 지켜주셨습니다”



이정환 집사 (40세, 대구만민교회)

저는 국립습지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는데 2016년 11월, 저희 센터 인근 창녕 우포늪에서 발견된 크고니 사체에서 AI(조류독감) 확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재창조의 권능 외에는 AI(조류독감)를 물리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저는 습지를 잘 보전해야 하기에 이번 사태가 하루 빨리 잠식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당회장님께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과연 기도해 주신 뒤, 창녕 지역에 AI(조류독감) 의심신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불임도, 다운증후군도 해결받았습니다”



임수희 전도사 (49세, 2대대 12교구)

결혼 후 13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불임의 원인을 찾고자 해도 알 수 없었기에 결국 아이 갖는 것을 포기하고 입양까지 생각하였지요. 2007년 만민교회에 전도되어 믿음을 갖게 되니 당회장님의 기도로 잉태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임신 4개월째에 쿼드(QUAD) 검사 결과 1:267로 다운증후군 양성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나 당회장님께 기도받은 다음 날 재검사한 결과, 1:1810으로 하루 만에 음성으로 바뀌어 2009년 4월에는 마침내 건강한 아들을 출산하였습니다.

“실명이었던 왼쪽 눈의 시력이 살아났습니다”



계계수렌 집사 (63세, 몽골만민교회)

17살 때 누군가가 내리친 쇠파이프에 머리를 다쳐 그 영향으로 왼쪽 눈의 시력이 점점 떨어져 실명되고 말았습니다.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은 뒤 우울증, 술, 도박 등에 빠져 방탕하게 살았지만 주님을 영접해 변화되었지요.

2015년 10월, 담임 발저릭 선교사님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해 주실 때 실명된 왼쪽 눈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0.03의 시력이 나왔고, 오른쪽 눈도 0.5에서 0.7로 좋아졌습니다.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교회 오시는 길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8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엘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재창조의 권능

되는 등 태풍의 진로가 바뀌고 소멸된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해도 지구의 자연환경은 예측하기 어렵고, 설령 예측한다 해도 막기 어려운 자연재해가 세계 도처에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재창조의 권능으로는 막을 수 있으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 '사람의 몸'을 재창조하는 역사

병원이나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인한 질병은 굳이 재창조의 권능이 아니어도 성령의 불세례가 임하면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신경이 죽었거나 조직이 퇴화된 경우는 새로운 세포와 조직이 생겨나야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지요. 예를 들어 시신경이 죽어 실명했다면 죽은 신경이 살아야 시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재창조의 권능으로는 이미 죽거나 퇴화된 세포와 조직도 다시 살릴 수 있지요. 심지어 생물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세포의 핵 속에 들어 있는 염색체까지도 재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 중 하나가 바로 태아의 다운증후군 치료입니다.

사람의 염색체는 23쌍 총 46개인데, 23쌍 중 21번 염색체가 정상인보다 한 개 더

많은 경우를 다운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정신 지체, 신체 기형, 전신 기능 이상, 성장 장애 등을 일으켜 평생 비정상인으로 살아야 하지요. 송희경 집사님은 임신 16주에 기형아 검사 결과, 태아가 다운증후군이라는 판명을 받았습니다. 태아에게 운동장애, 언어장애, 행동장애도 있고 얼굴의 눈, 코, 입 등 위치가 비대칭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지요. 병원에서는 산모를 위해 임신중절 수술을 권하기까지 했지만, 기도받은 결과 태아는 정상으로 태어나 건강하게 성장하였습니다.

염색체가 재창조되는 또 다른 증거는 태아의 성별이 바뀌는 간증입니다. 태아의 성별은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될 때 결정되는데, 임신 13주에서 14주경에 초음파로 태아의 성별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성별에 관여하는 염색체는 23번으로 여성은 XX, 남성은 XY입니다. 따라서 태아의 성별이 바뀌기 위해서는 23번 염색체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지요. 김선호 권사님은 임신 9개월째에 태아가 아들로 확인됐는데 딸을 원해 기도받은 후 딸을 출산했고, 일본 야마가타 최윤영 권사님은 임신 5개월째 검사 결과 아들이었지만 셋째는 딸을 원했기에 기도받

고 딸을 출산했습니다. 임신 몇 개월이든 상관없이 재창조의 권능으로는 순간에도 역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3. '사람의 마음'을 재창조하는 역사

하나님께서서는 육으로 변질된 마음, 악으로 물든 마음도 얼마든지 영의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새롭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시 51:10).

에스겔 36장 26~27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면서 동시에 마지막 때에 나타날 재창조 권능의 역사에 대한 예언입니다. 악으로 굳어지고 단단해진 마음이라도 재창조의 권능으로는 부드럽게 바꿀 수 있으며 부드러워진 마음이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재창조할 수 있는 권능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께서서는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대신 보혈을

흘리며 돌아가심으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공의가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원받을 수 없을 만큼 죄악에 물든 마음을 구원받을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재창조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 심령이 악하고 변질되어 심히 타락한 영혼들이라도 구원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대신 공의를 채우는 것이지요. 이로 인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더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창조의 권능은 누구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으며, 새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사랑의 선물’입니다. 또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부터 무수한 영혼을 구원해 내는 ‘비밀병기’라는 사실을 깨달아 재창조의 권능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천성 농아였던 제가 듣고 말도 조금씩 합니다”



레우 카 룝 형제
(25세, 말레이시아 셀레오만민농아교회)

2014년 3월, 선천성 농아인 저는 화상(네프시스 다중 화상 사이트)을 통해 수 요예배를 드리던 중 갑자기 양귀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난생 처음 듣는 소리라 무서웠지요. 차가 다니는 소리, 오토바이 소리, 식사하는 소리 등 모든 소리가 매우 낮설고 이상했습니다.

2015년 3월에는 ‘2회 연속 특별 다니엘 철야’ 기도회 첫날, 당회장님의 축복기도를 받은 뒤 더 잘 들렸고, 이후 ‘만민 하계수련회’에 참석할 때마다 청력이 더 좋아지고 말도 조금씩 하게 되었습니다.

“파킨슨병을 치료받아 걷고 뛸 수 있습니다”



박만배 집사
(67세, 2대대 19교구)

2010년, 파킨슨병이 발병해 제 얼굴 근육은 굳고 왼쪽 다리는 바닥에 끌려 제대로 걷기 힘들었으며, 넥타이 하나 매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니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지요.

2016년 5월부터 만민중앙교회에 다니면서 예배 때마다 당회장님의 환자기도와 만민기도원 환자집회 시 원장님의 손수건 기도를 받으면서 굳은 얼굴도 펴지고 걸으며 팔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지요. 2017년 8월, 만민 하계수련회에 참석한 뒤로는 뛰어다닐 수도 있습니다.

“악한 귀신들이 떠나니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최해숙 집사
(57세, 중국 1교구)

우상을 심히 섬기는 집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어둠의 세력에 시달리던 저는 큰 무당 집에 며느리로 들어가면 관찰을 까 싫어 결혼했지만 오히려 고통만 가중될 뿐이었습니다. 병명도 찾지 못한 채 시름시름 아팠지요. 잠을 자려고 누우면 가시로 몸을 찌르는 듯해 겁이 났고 괴로움에 자살 시도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영접한 친정어머니의 전도로 당회장님을 알게 되어 2017년 8월, 만민 하계수련회에 참석해 수십 년간 저를 괴롭히던 악한 귀신들이 떠났습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가정폭력에서 벗어나니 행복합니다”



씨티바브 집사
(50세, 인도 첸나이만민교회)

알코올 중독과 마약복용으로 인해 빛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아내와 아들들에게 칼을 들이대며 협박하는 등 폭력을 일삼아 가족은 두려움 속에 지냈습니다.

2007년 11월에 전도된 뒤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제 삶은 변화되어 술과 마약을 끊고 성실한 가정이 되었지요. 오토릭사(소형 영업택시) 기사와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축복을 받아 빛도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과 일가친척도 전도되어 심장질환, 몽유병 등을 치료받고 교회에서 충성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재창조의 권능으로 예술성이 살아나 그림을 잘 그리게 됐어요!”

엘레나 리트비나 집사 (57세, WCDN 러시아 조직위원회 총무)

저는 러시아 푸시킨 시 시립병원에서 수간호사로 오랫동안 근무하고 있으며 교회에서는 성가대 지휘자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초부터 심한 관절염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 때문에 잘 걷지를 못했습니다. 약과 마사지, 주사, 물리치료 등 다양한 방법을 써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상태는 악화되어 통증 때문에 아주 천천히 걸어야 했고 무릎을 펴거나 구부릴 수도 없었습니다. 특히 계단을 오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지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저렇게 자유롭게 뛰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2016년 10월, 만민중앙교회 창립 34주년 기념 행사에 WCDN 러시아 콘퍼런스 조직위원으로 초청을 받아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블라지미르 오시포프 담임목사님을 통해 만민중앙교회에 대해 많이 들었기에 제게는 가보고 싶은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되었건만 제 몸 상태는 따라주지 않았지요. 그러나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고통을 참으며 비행기에 탑승했고, 어렵게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10월 7일, 그토록 뵙고 싶던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관절염과 만성 두통 치료를 위해 기도까지 받았지요. 당회장님과 만남은 제게 매우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대형 교회 목사님이 저희들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 주신 것도 감사한 일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대해 주시고 섬겨 주시며 대화해 주시는 것에 사랑을 많이 느꼈지요. 또한 그 겸손한 모습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은 후 제 두 다리에 효과가 바로 나타났습니다. 계단을 오르면서 좋아진 것을 알 수 있었지요. 다음날 서울 시내 관광을 할 때에는 걸으며 언덕과 계단을 오르내릴 일이 많았는데 다리가 전혀 아프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10월 10일, 창립행사 다음날 저희는 마지막 일정으로 당회장님의 기도로 잔물이 단물로 변한 전남 무안단물(출 15:25)터를 방문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품고 믿음으로 침수하여 기도하려는데 아주 심한 두통이 밀려왔습니다. 두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기도제목은 생각도 나지 않고 오로지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두통을 치료해 주세요!”라고만 되뇌었지요.

10월 11일 출국하는 날 아침, 제 컨디션은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돌아온 제게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어려서부터 고통받던 만성 두통이 사라진 것입니다. 저는 항상 두통약을 소지하고 다니며 아플 때마다 먹곤 했는데, 머리가 전혀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혈압도 있었는데 한국 방문 이후 혈압을 측정할 때마다 정상으로 나왔지요.

제가 그동안 두통으로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그리고 5년 전 뇌경색이 살짝 와서 머리가 항상 아팠던 사실을 저희 병원 의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로 돌아온 후 지금까지 전혀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것을 보며 놀라워하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당회장님의 단 한 번의 기도로 이렇게 빨리 응답해 주신 것이 너무나 대단하기만 합니다.



게다가 더욱 신기한 간증이 있습니다. 어릴 적 누구나 쉽게

그릴 수 있는 토끼 조차 잘 못 그렸던 제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민중앙교회 방문 후 저는 손녀가 다니는 학교 사생 대회에 함께 갔습니다. 그림을 그리던 손녀가 옆에 있던 제게 “할머니 뭐해요? 그냥 있느니 같이 그려요.”라고 하여 저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굉장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머리와 가슴에서 예술적 열망이 뿜어져 나오면서 제 손이 그것들을 표현해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 그림을 본 주변 사람들은 “우와! 그림을 정말 잘 그리시네요. 화가신가 봐요. 계속 그려보세요.”라고 하였지요. 저는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그 뒤로 3개월 동안 16개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 그림을 환자 병동마다 걸어놓자 환자들이 보고 매우 좋아했지요. 저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너무 행복했고, 제 그림을 볼 때마다 ‘이게 정말로 내가 그린 그림인가!’ 하고 놀랄 정도입니다. 그림을 그릴 때면 무언가 속에서부터 희열이 넘칩니다.

이후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민중앙교회 방문 시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고, 또 무안단물에 침수한 뒤 고질적인 두통이 싹 사라진 후 바로 뇌의 영역 중 창의력과 예술 활동을 주관하는 뇌세포가 살아난 것이 아닌가?’ 하고 말합니다. 그림을 너무 못 그리던 제가 이렇게 잘 그릴 수 있게 됐으니까요. 이 감사와 행복을 어찌 다 전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만민중앙교회와 당회장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제게 건강과 행복, 새로운 삶을 준 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전문 화가가 제 그림을 본다면 부족할 수 있겠지만 놀라운 것은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미술을 배워본 적이 없고 잘 그리지도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은 분명 살아 계시고, 하나님은 치료하시며, 지금도 그분을 찾는 이들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고 계십니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지금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과 재창조의 권능으로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엘레나 리트비나 집사는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받고, 또 무안단물에 침수하여 만성 두통이 사라진 후 어릴 적부터 너무나 못 그리던 그림을 잘 그리게 되는 신기한 일을 체험하면서 이 목사에게 자신이 그린 그림과 함께 간증을 보내 감사의 마음을 전해왔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남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6 ☎055)322-7055, 010-6605-2254
- 남울산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도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시랑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민교회 광주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백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2909-2862
- 여수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학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문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청원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춘천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민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남로 153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원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성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빌D ☎031)905-2419, 010-2276-1014